

防産 通信·電子장비 해외市場 “노 - 크”

- 금성정밀, 태국 現地설명회 및 上院의원단 來韓 방문 -



국산 통신·전자장비를 수출하려는 금성정밀을 찾는 태국 주요인사들의 발걸음이 잦아지고 있다
왼쪽사진은 태국 上院의원 대표단에게, 오른쪽은 4월 24일 방문한 태국 최고사 군수국장에게 설명하는 모습



금성정밀이 해외수출에 나서는 대표적 장비
위 사진은 주파수 도약형 차기 FM 무전기
아래 사진은 GLAS-830M 저고도 탐지레이더다

국산 通信·電子장비가 해외시장을 「노 - 크」 하고 있다.

통신·전자 전문업체인 금성정밀이 태국을 비롯한 東南亞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외수출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최근 밝혀졌다.

금성정밀은 지난 2월 24일에 태국의 방콕에서 프라서트 태국 최고사 통신부국장(소장) 등 60여명의 태국군 인사들을 초청하여 現地설명회를 개최한데 이어, 3월 26일에는 카몰 테자툽가前 태국 최고사령관을 비롯한 태국 上院의원 대표단이 금성정밀을 방문하여 개발·생산 현황 청취와 함께 安致瀾 사장과 양국 방산사업 협력방안에 대해 깊이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 現地설명회에서 프라서트 태국군 최고사 통신부장은 차기 FM무전기에 커다란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참석한 軍인사들은 GLAS-830M 등 여러 장비에 대해 활발한 질문과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태국군은 현재 軍 보유 노후장비의 교체를 통한 현대화계획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번에



來韓 방문한 상원의원 대표단 11명중 9명이 현역 將星으로 상원의원을 겸직하고 있어, 향후 국내 방산장비의 태국시장 개척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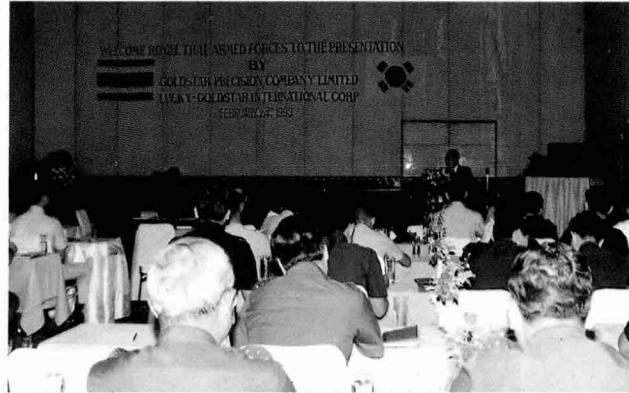
이 외에도 대우조선, (주)강남, 대우정밀 등 여러 방산업체가 국내시장의 한계를 탈피하기 위해 수출시장 개척에 꾸준한 노력을 전개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수출할수 있는 주요시장인 東南亞나 中東의 경우 여러 제약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東南亞의 경우 과거 영국이나 프랑스 등 유럽의 식민지에 따른 이들 국가들의 영향력과 함께 구매력 등 여러 제한이 뒤따르며, 中東의 경우는 외교력과 국력에 의한 外風이 거센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강남이 기뢰탐색함 수출상담을 전개하고 있으나 해외수출실적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은 지난 3월 31일 진수한 同型的 「고창함」



대우정밀이 軍用 小武器類 생산을 통한 노-하우로 미국 수출용 40구경 반자동 권총을 개발하였다
금년 하반기부터 미국 시장에 본격 출시된다



금성정밀이 2월 태국 방콕에서 가진 현지설명회 모습
차기 FM 무전기와 GLAS-830M이 관심을 끌었다



대우조선은 UAE와 말레이시아 프리킷 市場
受注戰에 돌입하였다. 사진은 IDEX '93 전시회 모습

또한 그동안 자주국방과 국내 관련기술 파급에 크게 기여해온 국내 방위산업이 이제 수출 활성화를 통해 국가경제에 一助할수 있도록 여러 지원책과 보완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요청되고 있다.

여기에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연불수출과 자원국들의 구상무역등에 대처할수 있는 수출자금의 대출 지원 및 수출부대비용에 대한 규제 완화등과 함께 수출가격이 낮을 경우 국내 공급가격이 삭감될 것이라는 우려도 불식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외시장 특성에 맞는 홍보 및 마케팅과 구매국 내부정보 획득을 위한 정보공유체제의 강화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홍보물 제작에 따른 여러 제한도 대폭 완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높여가고 있다. (泰)



미국의 과감한 기술이전 정책 전환이 先決과제

- 韓·美 防産 공동운영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

한·미 방산공동운영위원회 제12차 회의가 鄭秀烈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과 H. M. Fish 미국방위준비협회 국제사업담당 회장을 비롯한 양국방산업체 대표들 및 정부측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4월 21일 서귀포시 신라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미 방산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미국의 과감한 기술이전 정책이 선결 과제임이 지적되었으며, 공동연구개발사업 발굴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특히 무기공급원으로서의 미국 역할 감소와 함께 타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현실태가 열거되면서, 미국의 과감한 기술이전정책 없이는 타국과의 경쟁이 어려울 것이며, 기술이전에 관한 미국의 보수적인 태도는 한국으로 하여금 전통적인 공급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음이 지적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鄭秀烈 한국측 공동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미국 기술협력팀의 訪韓 결과보고서인 「국방관련 기술의 협력기회」의 발간·소개에 대한 축하인사와 함께 우리나라도 최근 金成燮 국방부 획득개발장관을 단장으로 미국을 방문한 보고서를 발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鄭秀烈 공동의장은 지금이 오늘 소개하는 美 기술협력단 보고서를 양국 정부간 접촉증대를 위한 기반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장을 열어가야 할 適期임을 언급하면서, 장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 업계대표가 참석하는 것이 협력을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임을 지적하였다.

• 주요 의제별 토의

* 미국 기술협력팀 訪韓결과 보고서에 대한 양국 업체의 견해

* 한국방위산업진흥회(KDIA)와 미국방위준비협회(ADPA)의 활동 강화

—防振会和 ADPA를 활용, 한·미 업체간 과학 및 기술교류 활성화

—기술자료교환 협정(DEA) 업체 전파

* 次期 한·미 방산공동운영위원회

미국 워싱턴에서 '93년 8월 개최 합의

• 韓·美 委員 주요 발언 요지

—미국의 제3국 수출규제 완화(요망)

件別이 아닌 국가별, 품목별 승인 전환

—전차 개량사업에 필요한 주포기술이전에 美

측이 소극적이며, 이는 제3국에 가도록 유도

—한국정부 무기획득정책에서 경제적 요소도 중요 고려사항으로 반영

대학에서 防産 관련 정책보고서 나와...

- 仁荷大, 「2000년대 한국 방위산업 방향과 정책대안 연구」

大學에서 방위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보고서가 나와 화제와 함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2000년대 한국 방위산업의 방향과 정책대안에 관한 연구」로 題名된 이 보고서는 인하대 金萬圭 교수를 책임자로 하여 文正仁(美 켄터키大), 白光一(인하大), 金義坤(인하大) 교수가 공동연구자로 참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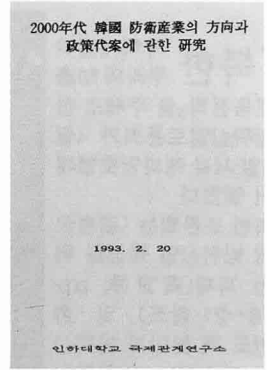
인하대 국제문제연구소가 펴낸 이 보고서는 주요 자료로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되며, 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80년대 이후 방산 침체 배경

- 무기획득방법이 국내연구개발에서 해외구매나 기술도입생산으로 급격히 전환
- 國科研의 급격한 下向 축소 조정
(1981년 1400여명의 연구인력 감원)
- 사용軍의 과도한 소요능력(ROC)요구
- 국방연구개발 투자비의 하향 조정
(70년대 : 국방비 5% → 80년대 : 1.4%내외)
- 정부의 과학기술인력 防産 유도 노력 미흡
- 정부 부처간 긴밀한 협력체제 不在
- 해외수출 부진 ... 미국의 통제
- 방위산업 정책의 비전(Vision) 결여



金萬圭 교수



* 2000년대 한국 防産의 정책대안

- 지속적인 방위산업 육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최고 지도자의 방산에 대한 비전 제시
- 산·학·연·관의 협력을 통한 정책수립 및 기능조정, 방산관련 제도의 전반적 개편
- 방위산업 운영정책 쇄신 및 국제경쟁력 가능분야의 특성화 촉진
- 방위산업 육성 관련 외교능력 강화
- 방산관련 연구개발투자비의 과감한 확대
(현재 국방비의 2% → 8~9%선 증액)
- 민간기업 주도의 무기체계 개발생산 및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防産 구조 개편 (泰)

삼성항공, F-5 개조사업 참여... 6조5천억 세계市場



三星航空 (대표李大遠)이 4월 8일 美노드롭社와 공동

으로 F-5 전투기 국제공동개조사업에 참여키로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세계 28개국에 보유하고 있는 2천4백여대의 F-5 항공기를 대상으로 성능개량과 수명연장을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미국 노드롭社, 삼성항공, 스페인의 CASA社와 대만의 AIDC社가 국제콘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며, 개량된 항공기를 판매하는 것을 포함해 예상시장규모가 6조5천억원에 달하는 국제공동사업이다.

원자력산업에 연구개발 투자라도 해야...

- 防振會와 방산학회 개최, 방위산업토론회에서 -

「북한」의 핵개발과 우리의 防産 대응전략」을 주제로 한 방위산업토론회가 4월 2일 서울 캐피탈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新한국」의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과제(黃東準, p.p 18~21 참조) 및 「한반도 핵 불안과 방위산업 기술개발(辛成澤)」 등 2편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順으로 진행되었다 (본문 계속)



이날 토론회에서 辛成澤 박사(한국 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는 주제 발표를 통해 핵산업과 원자력산업의 개괄적인 소개와 함께 북한의 핵산업 현황과 핵무기 제조능력에 대한 소견을 피력하였다.

이어 원자력 산업에 따른 관련분야(방위산업 등)의 기술개발 내역을 설명하면서, 예측할수 없는 국제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건이 성숙되었을때 이용할수 있도록 지금부터 원자력산업의 연구개발분야에라도 최소한 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여 주목을 받았다. (참조: 이번호 p.p 14~17)

이날 토론회의 종합토론을 발표順으로 발췌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李 基 澤 연세大 교수



최근 남북관계에서 정치적, 군사적으로 잘못된 것이 2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92년 팀스피리트를 실시하지 않은 과오이며, 둘째는 미국의 핵을 철수하고 非핵선언을 한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능력이 없어서 변화되지 않는한 북한이 밀어제치기식으로 生死를 걸고 핵정책을 추진해나갈 경우 앞으로 또는 통일이후 남북관계에서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에 반해 우리는 대부분의 국민이 북한 흡수통일의 환상에 젖어 있으나, 이 환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국가통수 차원에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여 우리 대응정책이 설정되어야 하고, 이의 일부로 방위산업의 육성방향도 재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 羅 柄 扇 국회의원



現 한국군은 재래식무기로 장비되고 이에 대한 조직으로 편제되어 있으나, 지금쯤 「20년후 軍의 모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립하여, 그것이 방산업체 과제로 주어져서 기술분야 연구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안되면 20년후 전체의 무기를 해외구매해야 합니다. 무기는 첨단으로 가는데 방산기술은 재래식무기에 머물러, 살아남을 길이 없게 됩니다.

年間 조달물량을 전반기에 계약하든지, 계약한 시기부터 1년후 납품하는 계약제도로 바꾸어야 합니다. 또한 국제가격보다 비싸더라도 국산품을 사용할수 있는 원가계산제도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UH-60 헬기에 장착되는 의자를 우리나라에서 개발하여 국제기술검증을 받기 위해 외국회사로 납품되었다가 다시 국내로 수입함으로써 10배정도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 등은 우리의 원가계산 제도가 잘못되었음을 반증하는 사례입니다. 조립업체로서는 원가가 올라야 이윤이 더 커지고, 이 때문에 가급적 국산품을 안쓰는 결과가 초래되는 현실태는 조속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 朴 慶 緒 중앙大 교수



우리가 쌀시장을 개방해서 주식을 해외에 의존할수 없는 것처럼 방위산업을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할수 없습니다.

방산과 직접 관련이 있는 국방예산 확보가 예전에 비해 매우 어려우며, 향후 5~20년후 한국의 방위모델을 이끌어갈 세대들의 정서가 6·25 체험 세대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현재 북한만의 단기적인 위협만을 고려하는 것보다 21세기의 더 큰 위협을 고려한 안보개념의 확립이 필요합니다.

民需와 軍需를 별개로 생각하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기술의 共用이라는 개념으로 시급히 인식이 전환되어야 하겠습니다.

* 金 學 玉 國科研 所長



新한국 창조의 일환으로라도 방산에 대한 모든 인원이 국가라는 공동체 의식을 갖고 추진할수 있도록 의식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규제·통제·간섭 등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보장해주고, 의욕을 불어 넣어줄수 있는 정책을 개발 적용해야 합니다. 방산업체에 어느 정도의 가동률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전문화·계열화 시켜야 합니다. 이와함께 국내개발품이 비록 성능이 낮고 가격이 비싸도 과감하게 써주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방산업체에서 해주어야 할 일은 품질 향상과 기술개발, 원가절감에 노력하고 국산화율을 제고해주어야 하며, 근로자들에게 일할수 있는 의욕을 부여하면서 민수산업에도 과감하게 진출해야 합니다.

대학에서는 올바른 인재양성과 공동체 의식을 갖고 대학교수들이 방산문제에도 적극 참여토록 분위기 조성을 해야 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개념에서 탈피하여 핵심기술개발에 집중하고, 업체와 학계에 과감하게 위임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 金 尚 憲 (주)풍산 社長



대부분의 방산업체가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 있으며, 이에 따른 자금동원능력의 미흡으로 업체의 개발의지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정책적인 수출통제 및 로얄티 부과등으로 제3국 수출의 구조적 한계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급격한

물량감소로 인해 종업원의 실직 등의 문제로 勞使관계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안 문제점의 해소를 위해서는 첨단 정밀무기 확보정책과 병행하여 재래식무기 생산라인의 최소가동률 유지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일반민수품 업체들이 받고 있는 세제, 금융, 자금 등의 정책지원을 강화하는 등 방산특조법이 시급히 집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업체간 과당경쟁을 피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국내개발이 되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제3국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수출지원정책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泰)